


# 안전, 노력과 인내로 키우는 거목(巨木)입니다.



한국노스케스코그(주) **신 성 식** 차장

가을의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며 익산에서 전주로 향하는 통근열차에 오른다. 한 낮 오후의 한가로운 들녘, 노랗게 물든 벼가 바람에 흔들려 꾸벅꾸벅 조는 듯 고개를 흔든다. 덜컹거리며 고부라진 레일 위를 달리는 통근열차엔 낯선 곳에서 느껴지는 설렘이 있다. 처음 보는 사람들과 처음 보는 풍경들 같지만 어딘가 모를 다른 느낌...

3시가 조금 넘어 한국노스케스코그 전주공장에 도착했다. 재난훈련이 막 끝났는지 소방차, 경찰차 등이 분주히 움직이고, 장내 방송이 행사의 진행 상태를 말해 주고 있었다. 행사가 끝나고 곧 신성식 차장을 만날 수 있었다. 그는 전남 순창에서 태어나 전남대 전기공학 과를 졸업한 후, 1991년 삼성그룹 공채 31기로 이곳에 입사했다. 환경팀 발전부문에 4년, 공무팀에서 4년, 생산지원팀 자주보전 및 에너지 센터에서 6년을 근무한 후 지금은 환경안전팀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이력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장의 여러 부서를 거쳐 현장 실무를 경험한 그에게 안전관리 업무는 낯설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평소에 스노보드 동호회 회장을 맡고 있을 정도로 운동을 무척 좋아하는 외향적인 성격이라 지금의 안전관리 업무가 가장 적성에 맞는 것 같으며 환하게 웃는다.

안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에 그는 “배려”라고 말한다. 안전관리자가 모든 현장의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져야 하지만 현실상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정한 행동과 상태를 감시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같이 일하는 동료나 선·후배가 서로의 안전을 지켜주는 “안전지킴이”가 되어 서로를 배려해 줄 때 진정한 안전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한다. “한 봉사가 깜깜한 밤길에 등을 비추며 걷는 것을 보고 한 사람이 봉사에게 물었습니다. 앞이 안 보이면서 왜 등을 들고 걷느냐고, 이 말에 봉사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어두운 길을 걷다가 나와 부딪치지 않고 또한 동료가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안전은 물론 다른 사람의 안전을 생각해 주는 게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타인이 자신의 잘못을 꼬집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문화가 있음을 얘기하며, 안전에서 만큼은 그런 문화를 버려야 안전 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한다. 건전한 안전문화는 비운 뒤 불쑥 자라는 죽순이 아니라 오랜 비바람을 맞은 튼튼한 거목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빨리 자라는 것이 아니라 튼튼하고 크게 자라야 한다. 그만큼 많은 인내와 노력, 시간을 투자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며 그렇게 얻은 문화는 무재해 사업장으로 가는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진리를 잊지 않길 그는 당부한다. 



〈임재근 기자〉